

【특집 · 열운 장지영 선생의 학문과 인간】

장지영 선생의 생애와 학문

김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 생애의 구분과 학계에의 등장

張志暎 선생은 일제가 발호하던 시기에 우리말의 연구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학자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선생은 본 仁同, 호 冽雲이며, 열강과 국교가 열린 1887년에 서울에서 탄생하여 1976년에 서울 東橋洞 자택에서 90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그 생애는 편의상 출생에서 1912년 26세까지 생장기 25년, 이후 1945년 59세까지 중년기 33년, 그리고 서거까지 후년기 31년과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학계의 등장은 하기국어강습소 강사가 된 1910년 7월 24세였다고 하겠다.

선생은 주시경의 제3회 하기국어강습소 새벽 2시간의 6주간 과정을 1909년 8월에 마치고, 1910년에는 동기생 朴齊璿과 함께 그 제4회 강습소 강사로 발탁되었다. 당시 선생은 한성외국어학교 漢語科 3년을 1906년에 졸업하고

6 새국어생활 제7권 제3호('97년 가을)

모교 부교관을 2년간 근무한 후였다. 고명한 어른을 찾아서 尙洞敎會를 드나들다 매년 열리던 강습소에서 주시경을 만났고, 그 감화가 생애의 지표로 뿌리 박힌 것이다. 이런 생애의 기록이 때로는 선생의 자술도 아구맞지 않아 이하 그 서술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2. 성장기: 1887~1912(25년), 1~26세

선생은 醫生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5세부터 가숙에서 한문을 배우고, 1903년 17세에 관립 한성의국어학교 한어과에 입학했다. 한문을 익힌 토대 위에서 3년간 이수한 중국어는 능통했을 것이고, 그래서 졸업하자 모교의 부교관으로 뽑혔던 것이다. 그런데 선생은 당시 3년제 소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중학과정의 부교관이 되었지만, 2년만에 대한제국 그 판임관 6등 월급 20원의 관직을 사임하고 22세에 다시 공부의 길로 되돌아갔다. 이런 전환은 얼마나 향학열에 불탔던가를 말하는 것이다.

즉 1908년 7월부터 서울 남창동 주시경의 사저에 다니며 3년간 문법을 배우는 한편, 동년 9월에는 주시경이 다니는 남창동 야간 전문학교 精理舍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東京物理學校를 유학한 柳一宣이 정신과 물리를 겸한다는 뜻의 교명으로 1907년에 창립한 예과 1년, 본과 2년제 사립학교였다. 선생은 3년을 졸업하자, 독립단체 新民會의 천거로 그 기관학교인 평북 오산학교 국어, 수학 교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105인 사건'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1년만에 부득이 상경하게 된 것이다.

상경하자, 1912년 9월부터 상동교회에 개설한 상동청년학원 교사 겸 학감

으로 2년간 역시 국어, 수학을 가르쳤다. 이 학원은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기 시작하자, 1904년 7월에 상동교회 全德基 목사에게 뜻 있는 교육사업에 써 달라고 재미교포 姜天命이 보낸 기금 5원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비밀 결사 신민회의 기관학교로서 정주 五山學校와 함께 쌍벽을 이루어 독립사상을 특별히 함양시켰다. 그런데 1911~13년에 수학한 金允經은 선생과 1912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사제간이었던 것이다.

선생이 남창동 상동교회를 찾은 것은 생애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선생은 약관에 대한제국 판임관으로서 비교적 안정된 관직에 있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큰 어른을 만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찾아 나섰다. 당시 감리교 상동교회 안에 설립된 소학교 攻玉學校와 중학교 尙洞靑年學院에 저명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李商在, 玄樞, 柳一宣, 李會榮, 李東寧, 周時經, 李承晚 등 당대의 사상가, 지사를 만나 사사하며 민족 진영에서 항일운동에 투신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이다.

큰 어른을 만나지 못하여 헤매다가 기어코 도달했지만, 이러한 생애의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범인으로서의 거의 불가능한 일을 단행하여 획득한 결과였다. 그런데 당시 이 전환은 첫째 교인이 아니면서 그 교회에 다녔다고 자술한 만큼, 교인이 된 것은 생애의 혁신이고, 둘째 유교의 집안에서 자라서 양학에 빠진 것도 혁신이었다. 셋째 장기적으로 합방이 예견되던 1908년에 결심한 선생의 행로는 평범치 않아서 꺼져가는 민족의 명맥을 되살리다가 겪을 고초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선생의 생애에서 주목할 것은 서울 상동교회 및 주시경과 맺은 인연이다. 주시경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사제간이면서 정리사의 2년 후배이며,

1905년부터 2년 역임한 주시경의 상동청년학원 교직을 답습하고, 또 1910년 강습소 강사, 1914년 경신학교 교사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은 1) 1906년 6월 부교관, 2) 1910년 7월 강습소 강사, 3) 1911년 7월 오산학교 교사, 어느 것이나 출세의 첫 등장이라고 하겠으나, 생애를 굳힌 점에서 2)를 꼽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선생은 1910년 3월부터 중국 龍井縣 明東學校 국어교사로 1년 있다가 오산학교로 전입해 갔다고 전택부(1978)는 전했다. 이 사실은 자술에 없어서 이제는 진부를 가리기 어렵다. 또 열운 선생은 본래 새문안교회의 교인이었다. 선생의 아버지는 새문안교회 집사직에 있었으며, 열운 선생은 어릴 때부터 새문안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했다. 이것은 유명한 분들의 지도를 받으려고 교인도 아니면서 상동교회에 다녔다고 한 선생의 자술에 정면으로 상충된다. 이 역시 진부를 가리기 어렵다.

3. 중년기: 1912~45(33년), 26~59세

선생은 합방 후 유명한 오산학교와 청년학원에서 교육에 힘썼으나, 청년학원은 1914년에 일제의 명령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애달픔은 겹쳐 승양하는 주시경 선생이 1914년 7월에 38세라는 젊은 나이로 작고했다. 그 유업은 金料奉에게 강습원 고등과와 휘문학교, 權惠奎에게 중앙학교, 申明均에게 보성학교, 선생은 예수인이라 배재학교와 경신학교가 각각 계승되었다. 여기서 밝힐 것은 선생은 1908년에 교인도 아니면서 상동교회에 다녔다고 한 만큼, 예수교인이 된 것은 이후 1910년경이었을 것이다.

3.1 전반기의 독립운동

일제가 강요한 1905년 11월 보호조약은 일방적 강점을 뜻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에 항거한 시종무관장 閔泳煥의 자결은 큰 충격이었다. 선생은 당시 외국어학교 19세 3학년생으로 忠正公 장례에 상엿줄을 잡고 통곡했고, 그 속에서 되짚은 것은 항일독립이었다. 그래서 큰 어른을 찾아 주시경을 만났는데, 이윽고 휘문 교장 任環宰, 청년운동가 兪鎭泰, 사업가 金德昌 등과 함께 경제자립과 문화독립을 목표로 한 '물산장려회'를 조직했다. 그것은 우선 검정 무명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입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인도의 간디(M. K. Gandhi, 1869~1948)가 영국 식민지하에서 전개한 비폭력 자활책의 하나로 제 옷을 제 손으로 짜서 입는다고 해서 자극 받고 본받은 것이다.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하다가 1914년에 귀국하여 국산품 전용 운동을 일으킨 만큼, 물산장려회는 1915, 6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시답지 않아서 드디어 강렬한 청년들의 비밀결사대 '흰얼모(白英社)'를 조직하고 혈서동맹하여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했다. 이 장려회나 백영사 활동은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이다.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의 승하로 민심은 분분하고 술렁거렸다. 선생은 33세에 3·1운동을 도우려고 흰얼모를 서대문구 교남동 132번지 택내에서 소집하고, 옹희 13년 2월 28일 국민대회라는 명의로 포고문 2천장을 등사했다. 1월 18일 파리의 강화회의에 특사를 보내려고 하니까 먼저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것, 독살한 친일파 尹德榮, 韓昌洙를 규탄하고 일제에의 항거에 일제히 필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에 대한 포고문을 거리 이곳 저곳에 내붙이는 한편, 여관에도 던져 넣었다.

선생은 이튿날 아침 상복차림으로 대한문 앞에 엎드려 곡하면서 행인의 동향을 살폈다. 과연 술렁술렁하고 방이 붙었다고 하며 야단이었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간 근무처 경신학교에서도 포고문을 보고 우르르 모인 학생과 선생들은 마치 노도 같았다. 탑골공원에는 사람들이 모여 술렁거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3·1운동에 더욱 분기토록 불을 질렀고, 각 지방으로 더 빨리 파급해서 쫓기게 하기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그 동지들이 잡혀 모진 고문에도 불지 않아 선생은 잡히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동지 간의 굳은 의리는 불타는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묘한 明과 暗을 본다. 이와 함께 선생이 곡하며 동태를 엿본 것은 목적이 다르면 가증하다고 하겠지만, 운동의 결과를 확인한 점에서 옳고 명이었다. 그런데 정말 가증한 것은 일제 관헌의 앞잡이들이었다. 당일 김옥현이란 형사는 만세를 부르자고 춤추듯 다니며 만세 부른 군중 등에 동그라미를 표시했다가 돌아갈 때 표 있는 사람을 모두 잡아갔다는 선생이 남긴 목격담의 지적이다.

3·1운동에 올랐던 기세는 국내외에서 많은 독립단체를 조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3월 하순에 각계각층 수만 명을 규합한 단체 大同團이 첫번째였다. 군수를 지낸 단장 全協(1878~1927)은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귀국하여 3·1운동에 참가하고, 대동단 고문에 증추원 의장을 지낸 金嘉鎭을 추대했다. 동년 11월 9일에는 義親王 李堉(1877~1955)의 승인을 얻고 독립선언문을 인쇄하면서 상해의 임시정부에 연락하고 의친왕을 상제로 번복시켜 탈출케 하려고 서울을 출발했다.

대동단의 공작은 의친왕을 황제로 옹립하여 임시정부를 새로운 왕통정부

로 만들겠다는 담찬 계획이었다. 선생은 데에서 만난 단장의 요청으로 제2 독립선언문을 집필했다. 인쇄된 선언문은 독립해야 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불행히도 살포책 독립운동가 金善 여사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압수되었다. 탈출에 성공한 의친왕은 또 중국 丹東에서 발각되어 2일후 서울로 압송되는 불운에 빠졌다. 이 공작은 비록 실패한 거사였으나, 민족을 하나로 집중시키려고 헌신한 조직적 독립운동이었다.

선생은 상동학원이 폐지되자 1914년 11월 28세에 주시경의 후임으로 경신 학교 교사 겸 교무주임이 되어 역시 국어와 수학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3·1운동을 겪고 제2 독립선언문도 썼다. 그런데 1926년 4월에는 막역한 권덕규를 대신 천거하고서 사임하는 우정도 허사였고, 중앙학교로 옮겨서도 안정되지 못했다. 드디어 1926년 10월 40세에 견습기자로 조선일보사 교정부로 옮기는 변동이 생겼다. 지방부장, 문화부장, 편집인을 역임하며 뜻 있는 사업을 했지만, 이윽고 교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선생이 조선일보 기자가 된 것은 부사장 申錫雨(1894~1953)와의 친분에 있었다. 신석우는 1924년 경영난에 빠진 조선일보를 사서 李商在를 사장으로 추대, 민족지의 면목을 갖추었다. 선생은 편집인으로서 부지중에 일제의 전과 4범이 되기도 했다. 1927년 2월에 창립한 新幹會에 참가하며, 1928년 여름부터 선생 주도로 학생을 동원한 문맹퇴치운동은 유명했지만, 신문사는 다시 경영난에 빠졌다. 사주가 바뀌어 사임하고 1931년 7월 45세에 양정중학교로 옮겨서 다시 국어에 중국어를 가르쳤다.

교원으로서 1908년 7월부터 3년 주시경 문하에서 배운 지식으로 국어를, 또한 1908년 9월부터 3년 가량 정리사에서 배운 지식으로 수학을 각각

12 새국어생활 제7권 제3호('97년 가을)

담당했다. 특히 국어는 중학교 주당 3~2시간을 배당한 조선어과였는데, 선생은 문법교재를 등사해서 가르쳤다. 1924년 2월 경신학교 교재 〈朝鮮語典〉을 비롯해서 1930년 중앙학교, 1932년 양정학교 교재 등 7종이 넘는다. 문법의 내용은 李圭榮의 〈말듬〉(1913. 경)과 같이 스승의 문법체계를 그대로 계승했고, 한자용어를 나타낸 점이 다를 뿐이다.

이 교재는 비록 유인본이나, 교과서로 서술한 선생의 저술이다.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歷代韓國文法大系〉에서는 선생의 친필인 1932년 4월 양정학교 교재 〈朝鮮語典〉抄本, 1937년 4월 프린트사 大氣堂印刷部 유인본을 꼽았다. 그리고 신문사를 나오자, 양정학교에서 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쳤는데, 중국어는 일찍이 외국어학교 한어과에서 배운 지식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따라서 1939년 5월에 출판된 〈中國語會話全書〉는 교과서로, 혹은 일제의 중국 진출 및 이민에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2 후반기의 한글 운동

3·1운동이 뜻했던 독립을 성취하지는 못했으나, 쟁취한 것은 거족적 합심으로 일제의 간담을 썩늘하게 했고, 일방적 무단정치에서 물러서 부분적이나 문화정치로 전환케 한 점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제한적이거나 신문, 잡지가 허가되고, 문화적 활동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21년 12월에 조선어연구회가 휘문고보 임경재 교장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이회는 1908년 8월에 창립했던 국어연구학회를 재생한듯 주시경 계승자가 많았고, 임경재, 李秉岐, 장지영 등이 그 간사였다.

1921년 5월에 〈啓明〉지를 내며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하던 계몽구락부의

활동에 자극을 받고, 임경재, 崔斗善, 李奎昉, 장지영 등이 모여 이에 대응할 조직체로 만든 것이 이 연구회였다. 초기에는 활동이 미미했고, 다만 1924년 2월 훈민정음 8회갑 기념회는 기억할 행사였다. 휘문학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신명균 : 세종의 공적, 이병기 : 훈민정음, 장지영 : 주시경, 권덕규 : 정음의 유래 등의 강연을 곁들여 식민지하 지식인의 고독을 달랬고, 세종 25년 12월을 기준한 한글날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연구회의 활동은 1929년 10월 가갸날 기념회에 이어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고, 1930년 1월 제10회 정기총회에서 간사장 李克魯, 간사 장지영, 최현배를 선출하므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1931년 1월 제11회 정기총회에서 조선어학회로 개칭하여 운동하다가 1942년 유명한 저 10·1사건으로 한때 일제의 된서리를 맞는 학회로 성장했다. 사전편찬에 착수하고 보니, 더 시급한 것은 맞춤법과 표준어 제정이었다. 선생은 학회 회원으로서 그 위원이 되어 맞춤법과 표준어 제정에 참가했다.

한편, 일제의 총독부는 장악을 위한 언어정책의 하나로 1912년 4월 철자법을 제정했다. 1921년 3월에 개정하고, 1928년 9월에는 2차 개정에 착수하여 조사회가 열렸다. 조선어연구회에서는 선생을 포함한 이규방, 권덕규, 최현배 등이 즉시 총독부 철자법조사회에 건의서를 제출기로 하고, 9월 14일에는 선생을 포함한 최현배, 권덕규, 신명균, 鄭烈模, 李浩盛, 李常春 등 7명이 건의서를 작성했다. 그 내용은 물론 받침을 무제한 쓰자는 주시경설로서 현행과 같은 형태주의 철자법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 건의는 크게 작용하여, 1929년 5월에 열린 2차 철자법조사회 심의위원은 이들 한글파가 일본인 5명보다 많고 정음파 2명의 3배가 넘는 7명이었다.

따라서 이 조사회 의 성향이나 결정은 예견되는 것이었다. 과연 한글과 의견 대로 가결되었지만, 일본인 관리가 권위자 의견으로 가나자와(金澤庄三郎 1872~1967)의 말을 따라 ㅎ반침을 삭제하자고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곡절을 겪었으나, 1930년 3월에 공포되고 4월에 실시되어서 일반에게 최초로 형태주의 철자법을 규범으로 시행케 되었다.

언어는 관습인데, 이것은 이론을 방패로 내세워 조직적 다수결로 성공시킨 철자법 개혁이었다. 주장한 주시경과 그 계승자에게는 갈망의 성공이나, 대중은 누구나 어려운 이론을 깨쳐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었다. 그 어려운 이론을 깨치기 위해서는 알맞는 설명서가 필요한데, 선생은 때 맞추어 1930년 8월에 44세로 <朝鮮語綴字法講座>를 저술하여 출판했다. 이 책은 46판 150면이나, 1930년 총독부 철자법에 대한 첫번째 설명서인 동시에, 선생의 활판본 저서로서도 최초가 되는 것이다.

이 저서는 그 철자법이 확정되자, 아는 출판사의 요청을 받고 원고를 넘겨서 출판한 만큼 확실히 해설서의 성격이다. 그러나 내용은 조사회에 질서있게 대처하려고 미리 작성한 통일안이 있었고, 이미 조선일보에 연재하여 끝날 단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걸보기와는 달리, 1928년에 건의서를 작성한 7명이 합의한 견해일 것이다. 과연 이 책에서는 총독부 철자법에서 삭제된 ㅎ반침이 그대로 있고, '끝치'로 결정된 것을 '끝이'로 표기한다는 등 양자의 불일치가 확인된다.

1930년 4월 총독부 철자법의 실시는 최초로 실현된 형태주의 표기법이지만, 그 실현을 주동한 조선어연구회에서는 미진한 점에 불만을 품었다. 그래서 1930년 12월 제10회 정기총회에서 독자적인 철자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결의했고, 선생을 포함한 권덕규, 김윤경, 신명균 등 12명의 위원이 2년간 심의를 거듭하여 원안을 작성했다. 계속 토의와 수정을 거듭하여 1933년 10월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공표했는데, 선생은 그 수정위원 10명 중의 일원으로 통일안을 마무리하기에 힘써 기여했다.

이 안은 하나의 민간학회가 제안한 방안이며, 당시 실제로 유효한 규정은 정부안이었다. 학회안은 정부안에 비해 1) ㄱ ㅎ ㅈ ㅊ ㅌ ㄹ 등의 새 받침을 더 쓰고, 2) '밭, 밭치, 갈치, 구치다'를 '밭, 밭이, 같이, 굳히다'의 형태를 밝히고, 3) 준 ㅎ(그러ㅎ다, 적당ㅎ지 등)을 밝혀 적도록 더 철저히 한 점이 달랐다. 반면에 이와 상반된 표음주의 표기법을 내세운 조선어학연구회가 1931년 12월에 창립되자, 철자법을 둘러싼 양 학회의 대립은 이미 논쟁으로 번졌다. 혁신 대 보수의 대논쟁이었던 것이다.

이 대립은 조선어학연구회의 기관지명을 딴 정음파와 역시 조선어학회 한글과와의 논쟁이었다. 그 논쟁은 <통일안>이 나오기 전 1932년 11월에 동아일보사 주최로 3일간 열린 토론회가 절정이었다. 철자법은 관습인데, 이에 반하는 병서, 받침, 어미활용 등 이론을 논쟁하고, 실제로 글을 쓰는 대중과 무관한 논리의 우열을 평가했다. 오고 간 비방이 야비했고, 정음파에서는 보수파답지도 않게 왜 ㄷㅅㅊㅌㅍ 등의 새받침과 이상한 부호를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스스로 살을 깎는 과오를 저질렀다.

조선어학회에서는 계획대로 1935년 1월에 표준어 사정에 착수하여 1936년 10월에 약 1만 개의 어휘를 정리했다. 선생은 위원으로 혹은 수정위원으로 이 사업에 기여했다. 이어 1940년 6월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완결되어 사전의 기초작업이 끝남으로써 애초에 구상한 사전편찬은 급진전되어

갔다. 1942년 봄에 드디어 <조선어대사전>의 탈고와 출판허가 및 조판이 시작되는 쾌거를 12년만에 맞았다. 그러나 불운은 닥쳐 이윽고 일제의 검거로 이른바 10·1사건이 터져 다 오유로 돌아갔다.

10·1사건으로 선생은 56세에 이극로, 정인승, 이윤재, 최현배, 이희승 등과 함께 일경에게 검거되어 함흥경찰서에 갇혔다. 갇은 고초로 두 동지는 옥사하고 1944년 10월에 선생은 정열모와 함께 예심면소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주거의 제한으로 고생하다가 경기도 양주에서 밭을 얻어 농사를 지었다. 1977년 12월에 정부에서 선생에게 추서한 건국포장은 이러한 항일운동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나타낸 서훈이었다. 그렇지만 50대 후반에 당한 심신양면의 고통이 한낱 포상으로 보상되지는 못할 것이다.

4. 후반기: 1945~76(31년), 59~90세

광복의 환희에 더욱 기뻐한 것은 조선어학회李克魯, 崔鉉培, 李熙昇, 鄭寅承의 출옥이었다. 그 8월 임시총회의 결정으로 시급한 국어회복의 공백을 메우는 큰 소임을 학회가 담당했다. 그런데 광복 후에 나타난 한 갈래의 경향은 한자 폐지였다. 일찍 9월에 제1회 국어강습회가 끝날 무렵, 장지영 외 30명 위원의 발의로 강습회 졸업생을 주축으로 漢字폐지실행회 발기준비회가 결성되고, 1949년 6월에는 한글 전용촉진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지향은 당시 학회의 권위로써 거침없이 수용되어 갔다.

선생은 일제하의 실직 3년에 1945년 10월 59세에 미군정청 문교부 최현배 편수국장 아래 부국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1946년 2월에는 조선어학회 6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저술도 하고, 10월에는 서울사범대학에 출강한 만큼, 일제의 전과, 요시찰은 이미 해소된 셈이다. 학회는 임시총회에서 3년 임기의 이사제로 회칙을 개정하고서 장지영을 이사장으로 한 진용으로 개편했던 것이다. 학회의 사업은 갈망하던 <조선말 큰 사전>을 서둘러 출판한 1권(1947. 10.), 2권(1949. 5.)이 꼽히고 있다.

1948년 8월에는 남한 단독의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청은 일제에게서 접수한 나라를 인계하고 폐지되었다. 선생은 62세에 그 편수국 부국장으로 사임하고, 이어 9월에 연희대학교 교수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대우, 조선어학회 부설 세종중등교사양성소 소장을 겸임했다. 양성소는 선생이 부국장으로서 세운 계획안에 따라 인가되었는데, 학회로서는 국어강습회 1945년 9월 제1회, 1945년 10월 제2회, 1946년 1월 제3회에 걸쳐 긴급한 국어교사를 배출한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2년제 대학이었다.

이 시기의 저술은 1946년 6월 <국어입문>과 1948년 8월 <가려뽑은 옛글>이 출판되었다. 전자는 입문용 교과서로서 1928년부터 조선일보에서 전개했던 문맹퇴치운동 당시의 교재 문자보급반용 <한글원본>과 직결되는 방법이며, 후자는 고교용 고전 교과서로서 당시 다수 채택되어 유명했다. 특히 전자는 선생도 기초위원이었던 조선어학회 1945년 11월 <한글 첫 걸음>과 함께 종래의 반절식과 같은 자모식이다. 즉 문자의 학습을 지진시키는 단어가 아니라 다급한 보급에 유효한 소임을 다했다.

광복 4년, 민족회복의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았다. 그러나 분단된 남북간의 동족상잔 6·25사변은 모든 것을 앗아갔고, 모두에게 큰 비통과 고난을 안겨다 주었다. 선생은 제주도로 피난하여 교직으로 호구

하고, 환도하여 1952년 11월에 연세대학교에 복직했다가 1958년 3월에 70세로 정년퇴임, 1961년까지 대학원 강사로 강의의를 계속했다. 그 사이 1957년 장관의 공로 표창을 위시하여 1958년 대통령 공로 표창, 1962년 문화훈장 혹은 1964년 연세대 명예박사로서 공적이 찬양되었다.

후년기의 직업은 먼저 1945년 10월 군정청 학무국 편수와 부과장, 1946년 3월 법령 64호로 바뀐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 부국장으로 1948년 8월까지 근무했다. 이어서 9월에 연희대학교 교수로 정년까지 약 10년 재직했는데, 1945년 10월에 취임한 金允經(1894~1969) 교수는 동료이며 언급한 대로 상동청년학원의 사제간이었다. 또 1926년 4월에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한 崔鉉培(1894~1970)는 주시경의 조선어강습원 1911, 1912년 2, 3회 중등과, 1913년 1회 고등과를 졸업한 옛 동지였다.

그러면 연세대학교의 기풍은 광복 후 이들 동지적 결합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동지적 결합의 요인은 1909~1913년 사이에 주시경의 지극한 훈도를 직접 받은 것이 첫째 공통점이고, 예수교 세례교인으로서 성경 등에서 보듯 한글 전용을 실행하는 종교를 신앙한 것이 둘째 공통점이었다. 이들의 결합은 미션계 연희대학교에 거부감 없이 정착되면서 타교로 번져갔다. 따라서 선생을 포함한 국어학 진용은 연희대학교에서 일찍 한글 전용을 실천케 한 선구자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후년기의 저술은 69세의 연희대학교 강의안 〈鄉歌〉 1955년 5월 유인본이 있다. 유인본인 탓인지 알려지지 않고 평가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그런데 1976년 4월에 〈이두 사전〉이 유저로 출판되었다. 자제 장세경과 공저인 이 사전은 절필인 머리말에서 향가와 동시에 착수한 듯 보이고, 그 이론편에서

는 향찰이 포함된 광의로 규정된 이두의 해독법을 시도하여 양자의 관계가 엇보인다. 1957년 김용현과의 공저 고교 교재 <중국어>와 1964년 주해 <홍길동전·심청전>도 저서로 장식하게 되었다.(1997. 8. 1)

참 고 문 헌

- 한글학회(1971. 12.) 한글 학회 50년사, 서울 : 한글 학회.
金敏洙(1973. 11.) 國語政策論, 서울 : 高麗大學校出版部.
李秉岐 著, 鄭炳昱·崔勝範 編(1976. 4.) 가람 日記 (I)(II), (新丘文庫 35, 36) 서울 : 新丘文化社.
이관구(1978. 6.) “겨레의 얼을 빛낸 열운 선생”, 나라사랑 8-1·2(통권 29)(1978. 6. 23), 열운 장지영 특집호 48~63.
이희승(1978. 6.) “열운의 편모(片貌)”, 위, 44~47.
장지영(1978. 6.) “열운 수기 : 내가 걸어온 길”, 위, 21~43.
전규태(1978. 6.) “열운의 학문과 인간”, 위, 64~70.
전택부(1978. 6.) “북간도 시절의 열운 선생”, 위, 91~94.
편집실(1978. 6.) “열운 연보/열운 장지영 해적이”, 위, 16~20.
하동호(1978. 6.) “<朝鮮語典>의 계보”, 위, 71~90.
金敏洙(1990. 7.) “朝鮮語學會의 創立과 그 沿革”, 周時經學報 5(1990. 7. 27), 50